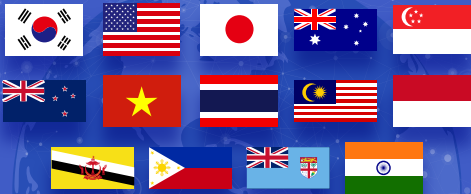


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

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



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란?

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러
디지털, 공급망,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
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입니다.

기대효과

- △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
- △공급망 회복력
- △인프라·청정에너지·탈(脫) 탄소
- △세금·반(反)부패 제도 구축

IPEF 추진 배경

2017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,
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탈퇴



중국의 주도로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이 2022년 2월 발효



미국 입장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등에
대처할 필요성 인지



**미국은 인도-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
지난 3월 중순 11개국에 IPEF 참여 제안**

IPEF 참가국 및 경제규모



출범일

2022년 5월 23일

참가국

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, 뉴질랜드,
베트남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
브루나이, 필리핀, 인도, 피지 등 **14개국 참여**

경제규모

GDP의 40%를 차지하는
거대한 경제협력체 탄생

IPEF의 주요 의제



- ☑ 디지털 경제, 노동, 환경을 포함한
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
- ☑ 공급망 탄력성 구축을 위한 협력
- ☑ 인프라와 녹색 기술협력
- ☑ 공정 경쟁을 위한 조세 및 반부패 제도 구축

IPEF의 특징

IPEF ≠ FTA

자유무역협정(Free Trade Agreement, **FTA**)은 체결국과의 관세를 낮추고 자유 무역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, **IPEF**는 관세인하와 같은 시장 접근 조항을 다루지 않습니다.

IPEF ≠ RCEP, CPTPP

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, **RCEP**)과 **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**(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-Partnership, **CPTPP**)은 모든 분야에 대해 **‘일괄 타결 방식’**을 채택하고 있지만, **IPEF**는 모든 협상 내용을 받아들이기 필요 없이 특정 규범 분야에 한정해 타결하는 **‘모듈 방식’**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IPEF의 기대효과



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을 통해
공급망 안정화 등 **우리 기업의 실익 극대화,**
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, 공급망·디지털 경제·탈탄소 등
신통상 의제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
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